

종합·해설

# 민주 '야권大통합' 불씨 다시 살린다

## 민노·진보·참여당 '小통합'에 위기

### 야권통합 특위 구성 국면전환 모색

민주당이 4일 야권통합특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야권 통합' 논의에 착수했다.

하지만 당의 노선과 정체성 등을 둘러싸고 통합에 대한 이견이 큰 현실이어서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야권을 모두 아우르는 '대(大)통합'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6월 임시국회가 끝난 만큼 민주당이 야권 연합과 통합에 대한 노력을 시작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야권 통합과 관련, "민주 진보진영의 모든 정당은 물론 현재 정당 영역에 진입하지 않은 개인과

정치세력, 시민사회세력을 포함하게 될 것"이라며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은 물론 시민사회 진영과의 대통합 논의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야권 통합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서로 간 차이는 극복 대상이지 분열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한 뒤 "야권 통합의 마지막 총본 조건은 민주당의 희생이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많은 진통이 있을 것이지만 슬기롭게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날 이인영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야권통합특위'를 본격 가동키로 선언한 것은 야권통합

지형에서 설 땅을 잃어버리지 못한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당장,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오는 9월 통합진보정당 창당을 목표로 착실히 수순을 밟고 있고, 여기에 국민참여당이 동참 의사를 타진하면서 통합'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야권이 한 지붕 아래 모이는 '빅 텐트론'은 사실상 물 건너가고 민주당과 '통합 진보정당'의 양당 체제로 고착화되면서 총선 승리 및 정권 교체 전략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하지만 야권대통합의 현실화까지는 상당한 진통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선 내년 총선 공천에서 민주당의 희생을 전제로 한 대통합에 대해 당내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체성 차

이 등을 명분으로 통합보다는 연대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크다.

아울러 손 대표의 '종북(從北) 진보' 발언으로 골이 깊어진 민주노동당과의 관계 개선도 넘어야 할 산으로 보인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손 대표가 야권통합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배경에 대해 최근 대북정책 기조를 둘러싼 당내 논란을 진화하는 동시에 한나라당의 전당대회 여파로 민주당에 불어닥칠 쇠신 바람을 차단하려는 포석으로도 분석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야권대통합은 민주당이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그럴 수 있는 최고의 카드"라며 "하지만 여기에는 당내 반발과 타 야당과의 협상을 지혜롭게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대권을 꿈꾸는 손 대표에게는 가장 큰 난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당 개혁특별위원회 천정배 위원장이 4일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당 개혁특별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 공천·전대를 막판 조율 진통

## 지역위원장 사퇴 시한·여성특례 조항 등 '빅3' 입장 달라

민주당 개혁특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총선과 대선 후보 선출과 전당대회에서의 지도부 선출 방법에 대해 막바지 조율을 벌였지만 이날 밤 늦게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일단, 개혁특위는 총선과 대선 후보 선출시 오픈 프라이머리(100% 국민경선) 전면 도입과 지도부 선출시 전당원투표제 실시 등에 대해서는 합의의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배심원제 도입 여부와 여성특례 조항 강화, 지역 위원장 사퇴 시한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충돌했다.

배심원제 도입과 관련, 정세균 최고위원 측은 오픈 프라이머리의 동원 당대회에서의 지도부 선출 방법에 대해 막바지 조율을 벌였지만 이날 밤 늦게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일단, 개혁특위는 총선과 대선 후보 선출시 오픈 프라이머리(100% 국민경선) 전면 도입과 지도부 선출시 전당원투표제 실시 등에 대해서는 합의의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배심원제 도입 여부와 여성특례 조항 강화, 지역 위원장 사퇴 시한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충돌했다.

전 사퇴안이 제시된 상황이다.

당내에서는 공정 경선을 위해 현재의 지역위원장이 선거일 6개월 이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과 지역위원장의 조기 사퇴는 당의 근간을 흔들며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이날 정치 신인 40여명은 천정배 개혁특별위원장과 면담에서 "기득권을 확보한 전직 지역위원장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이중 가산점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기지역 원외 지역위원장은 이날 사명을 내고 "경선 전 지역위원장 사퇴 조항은 대 갈등 조직을 흔드는 문제"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민주, 대기업 富 편법상속 성토

## 정동영 최고 "재벌개혁 특위 구성하자"

정치권과 대기업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재벌 개혁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은 이행하지 않고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면서 "재벌이 많이 벌수록 중소기업과 서민이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재벌 총수의 2, 3세들이 비상장회사를 세우고 그룹 전체가 일감 몰아주기에 몰인하는 편법상속이 자행되고 있다"며 "재벌사 직원들이 빼빼지기에 일해 총수 가족의 배를 불러주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정동영 최고위원 역시 재벌문제 해결을 위한 특위 구성과 당령 개정을 주장하며 공세의 고삐를 당겼다.

정 최고위원은 "재벌의 오만함을

바로잡고 서민 보호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하는 게 진보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지름길"이라며 "재벌 개혁에 대한 청사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재벌 개혁의 핵심은 상속여 문제"라며 "(재벌은) 과거 전환사채 등을 이용해 편법상속했는데, 최근 변종으로 등장한 게 소모성자재 구매대행(MRO)"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은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을 상대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청문회 개최를 촉구하기로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학교밖 청소년 보호 지자체 첫 조례안 시의회 본회의 상정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4일 강은미(민노·서구4)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학교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지원 조례안'을 의결, 본회의에 상정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도입되는 이 조례는 교육적, 사회적 방임 상태에 놓인 학교밖 청소년들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개인별 여건과 특성에 맞는 적절한 교육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강은미 의원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와 간담회를 갖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며 "매년 광주에서 1800여명의 청소년들이 학교를 중단해 편견과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3일 제200회 광주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최광원기자cki@

# 경찰, '민주 도청' 외부 소행 잠정 결론

민주당 대표실 도청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4일 내부 자료 유출 가능성은 거의 없고 외부에서 도청이 이뤄진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회의장에 있던 자료 분석 결과 내부 유출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 외부 도청 가능성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상황으로는

민주당에서 쓰는 녹음기 이외에 다른 녹음기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 3일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 대한 실황조사를 벌인 결과 회의장 문이 두꺼워 외부에서 이른바 '귀대기'로 자세한 내용을 엿들을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장에서 실황 조사를 한 결과 대표실 구조상 밖에서 들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 문

도 두껍고 해서 '귀대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중으로 당시 회의 속 기록 작성에 쓰인 녹음기와 노트북, 정식 녹취록을 만드는데 사용된 USB 메모리스토리와 데스크톱 등 자료에 대한 분석을 모두 마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향후 민주당 관계자 대신 당시 회의장에 접근이 가능했던 관계자 등 외부를 대상으로 수사를 집중하기로 했다.

아울러 녹취록을 최초 공개한 한선교 의원에게 이날 중 출처요구서를 보내 수사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 "말 몇마디 갖고 자중지란 말자"

## 민주 '대북 포용정책' 갈등 봉합 국면

포용정책과 관련,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의 손학규 대표에 대한 비판 발언으로 촉발된 당내 갈등은 봉합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말 몇 마디를 가지고 자중지란을 할 필요가 없다는 당내 여론이 확산한 때문이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햇볕정책은 민주당의 당론이자 정체성으로, 원칙이 하나라도 훼손되면 그 자체로 햇볕정책이 아니다"며 "이번 일은 햇볕정책의 본질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혼란"이라고

갈등 봉합에 나섰다.

그는 이어 "민주당에는 종북세력 최고, 친북세력도 없다. 현명한 대북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민주당"이라고 강조했다.

정세균 최고위원도 "당내에 논란이 일어나 유감스럽다. 당의 정책은 한두 사람에게 의해 수시로 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불필요한 논란으로 민주개혁 진영과 국민이 불편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비주류 연합체인 '민주희망 2012'

공동대표인 천정배 최고위원도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 손 대표의 발언에 대해 "의미가 불분명해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서도 "대북정책을 수정한 것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논란의 당사자인 손 대표와 정동영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에서는 대북 관련 발언은 일절 하지 않으며 확전을 자제했다. 정 최고위원은 전날 민주희망 2012 출범식에 참석했다가 이날 중국 방문 길에 오르는 손 대표에게 "출발식에 참석해 줘 감사하다. 중국 잘 다녀오시라"고 덕담을 건넸고, 손 대표도 회의 도중 자리를 뜨면서 "비행기 시간 때문에 양해해달라"며 정 최고위원에게 웃으며 악수를 건넸다.

/박지영기자 jpkpark@kwangju.co.kr

### 대인동삼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  
르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  
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을 다하겠습니다.

(FAX)223-1772 24시간 011-602-2532  
(광주영등포 신본점, 대인동 소방사건너편)

### 신진공인중개사 (임대전문)

#### 광산구 도천동 자연복지 매매

▶ 산월IC 교통광장 집 코너  
▶ 면적: 700평, 1350평 분할가 광고효과 최고!!  
▶ 매매가격: 협의후 결정

#### 화순 북면 수원원양원기도원 부지 매매

▶ 임야: 47000평, 단층건물: 250평 (5동)  
단지내 도로개설될 소나무, 산악초 재배단지  
▶ 매매가격: 협의후 결정

#### 북구 신안동 토지매매 (상업지역)

▶ 대 지: 250평(30x8코너)  
가로32m, 세로26m (분할가능)  
▶ 급 매: 매매가격 협의후 결정

#### 북구 동림동 공장(창고)급매

▶ 대 지: 538평, 680평, 1000평  
▶ 건 물: 300평, 200평, 200평  
▶ 높 이: 8.9, 10.9m  
▶ 호이스트: 유, 유, 유  
▶ 매매가격: 협의후결정

문의: ☎ 016-644-4265, FAX.523-8558

## 쉽게 치료되지 않는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고질적인 콧병 수술없이 다스린다

근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 인체면역력 강화로 알레르기성 고질병을 치료한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 치료 가 매우 중요하다.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만성화될 경우 축농증, 비염(물혹), 중이염, 인두염, 기관지 천식 등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알레르기성 비염 등 각종 코 관련 질환들은 학습에 치명적인 지장을 주고, 성장기 아동의 경우 성장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격형성이나 성격형성에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성장발육에도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효과적인 조기 치료 가 매우 중요하다. 근본적인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대개 만성화되거나 축농증으로 진전되어 평생 호흡곤란과 두통, 집중력 저하 등으로 고생하게 되는데, 특히 어린이나 수술생의 경우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로 인해서 학업 성적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인체면역력 강화로 알레르기성 고질병을 치료한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고 눈이나 인후두가 가렵거나 냄새를 잘 맡을 수 없게 된다. 또 눈물이 흐르거나 머리가 아파오고 피로해지는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코가 근질거리면 시력은 흐릿해지고 재채기를 발작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미 만성 알레르기 비염이 심해졌던 것이며 결국 축농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증세가 심해지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타나며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감소되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또 위장병이나 만성두통으로 발전하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근피동 20여 가지로 만든 한약 고질적인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에 좋은 효과

콧병치료의 시작은 먼저 환자의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체질을 개선시켜 막힌 기운을 뚫는 데 중점을 두는데, 이환원 원장도 이런 과정을 통해 10여 년간 비염을 중점적으로 치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약을 만

들어 효과적으로 비염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있다.

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비후성 비염 등 고질적인 코질환에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유근피이다. 이 유근피에 살구씨, 신이화, 수세미 등 면역력 증강과 호흡기가 튼튼해지는 20여 가지의 약재가 가미된 평강한의원 한약은 작은 환약으로 만들어져 어린이가 복용하기에도 수월하며, 고질적인 비염이나 축농증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평강한의원에서 치료하는 약액은 주재료인 참느릅나무 껍질인 유근피는 예로부터 민간요법에서 콧병에 잘 듣는다고 하여 일명 '코나무'로 불리던 것으로, 콧병뿐 아니라 기침을 멈추게 하고 호흡기를 깨끗이 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며 염증이 위장병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평강한의원에서는 참느릅나무 뿌리 껍질인 유근피로 만든 한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결과 알레르기성 비염과 축농증을 비롯한 각종 코질환에 좋은 치료성과를 거두고 있다. 평강한의원의 이환원 박사는 자연을 이용하면 어떤 병이든지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평강한의원 이환원 박사  
(한의학 박사, 경희대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02-3481-1656  
www.dr-lee.co.kr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회 제090204-중-473호